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he Factors Influence upon Job Maintenance of the Mentally Disabled with Job Experience

변은경¹⁾ · 윤숙자²⁾ · 최송식³⁾

창신대학 간호과 전임강사¹⁾, 경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전임강사²⁾,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³⁾

목적 : 본 연구는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사회·환경적, 직업재활 프로그램, 임파워먼트로 설정하고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미치는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중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 되었다.

방법 : 본 연구는 상관관계 연구로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고 한 번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인 221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도구, 직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 도구, 지각된 사회적 지지도구(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임파워먼트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관련 요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취업한 정신장애인이 직업유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연령이 1.85배 높고, 직업유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일근무시간이 3.05배 높았으며, 직업유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월급여가 1.77배 높게 나타났다. 직업유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직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가 1.75배 높고, 직업유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사회적 지지가 0.56배 낮게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있어 연령, 월 급여, 일 근무시간, 사회적지지, 직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적, 직업적 특성과 정신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무지도와 직업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간호중재 전략을 개발하여 직업적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취업과 직무유지를 통해 적절한 급여를 받고 지역사회로 일원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지역사회와 직업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천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제21권 제1호, 2012년 5월 게재

2) 윤숙자, Yoon, Suk Ja, E-mail: yoonsj@gju.ac.kr